



또 범가너 만나는 류현진 이번엔 시즌 4승 제물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다저스의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는 류현진에게 익숙한 상대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통산 16차례 등판해 6승6패, 평균자책점 2.94를 기록하며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익숙한 환경에서 등판에 나선다. 맞대결을 펼칠 상대 선발투수는 매디슨 범가너다. 이미 류현진과 8차례 맞붙었고, 이때 류현진은 3승3패 평균자책점 1.90의 성적을 거뒀다. 범가너도 3승4패, 평균자책점 1.36을 기록했다. 맞대결을 벌일 때마다 승부가 팽팽하게 전개됐다는 의미다.

최근 흐름은 류현진이 더 좋다.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 3승1패, 평균자책점 2.96을 마크하고 있다. 반면 범가너는 5차례 등판에서 1승 4패, 평균자책점 4.30에 그쳤다.

둘은 올 시즌에도 이미 한 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4월 3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류현진은 7이닝 동안 6피안타(1홈런) 4타수 5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범가너는 6이닝 5피안타 2볼넷 5실점(비자책점)으로 패전 명예를 썼다. 이때 류현진의 2실점은 6회 범가너에게 허용한 2점 홈런이었다. 범가너는 통산 18홈런을 터트렸을 정도로 타격에도 재능이 있어 마냥 편안하게 승부할 수 없다는 게 부담스럽다.

이번 등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원정경기 첫 승 도전이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홈 3경기에서 전승을 거뒀고, 평균자책점도 2.25로 좋았다. 그러나 두 차례 원정 등판에선 1패, 평균자책점 4.91을 기록 중이다. 4월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원정에서 내전전 통증으로 2회 자진 강판했고(1.1이닝 무실점), 복귀 전인 4월 21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는 5.2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패를 떠안았다. 지구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원정 첫 승을 거둔다면, 향후 행보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다시 한번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아기 독수리, 리드오프 미션도 완수!



아기 독수리가 어느새 팀의 가장이 됐다. 프로 2년차 한화 이글스 정은원의 맹활약은 올해도 계속된다. 공수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독수리 군단의 불박이 2루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에서 안타를 때린 뒤 출루한 정은원.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두산전 정근우 대체 ‘1번’ 역할 수행 4타수 2안타 2타점…2루수 수비 국한용덕 감독 “작년부터 불박이 염두”

요즘 한화 이글스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는 정은원(19)이다.

입단 첫해인 2018시즌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로 관심을 끌었던 소년이었을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팀의 공수 살림꾼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한용덕 감독(54)도 “(정)은원이 가장 컸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않는다.

정은원은 1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에 1번타자 겸 2루수로 선발출장했다. 0.342(73타수25안타)의 고타율을 기록 중인 2번타수인 더 익숙했지만, 정근우가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쳐 이탈한 탓에 한 감독은 정은원에게 리드오프를 맡겼다. “현시점에서 정은원이 1번에 가장 적합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정은원은 결국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활약으로 팀에 4-1 승리를 안겼다.

정은원은 테이블세터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 작전수행 능력이 일품이다. 실제로 4월 30일까지 기록한 118타수 가운데 101타수를 1, 2번 타수에서 소화했다. 입단 2년차의 젊은 피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지만, 정은원에게 주눅 든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타석에서 자신감이 넘친다. 하체가 흔들리지 않으니 파워까지 향상했다. 안정적인 수비는

입단 첫해부터 인정받았다. 한 감독은 “편지력도 좋아졌다. 기대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1일에도 정은원의 방망이는 불타올랐다. 1회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투수 유희관을 상대로 좌익선상 2루타를 때려낸 뒤 이성열의 우익선상 2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다. 이날의 결승 득점이었다. 3회 우익수 뜯김으로 한 차례 쉬어갔고, 2-1로 앞선 4회 1사 2·3루에선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트렸다. 1회 2루타에 이은 득점이 팀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4회 썩기타는 충분조건이었다. 전반기까지 0.406(32타수13안타)의 높은 득점권 타율을 기록한, 승부사의 면모가 또 한 번 빛난 셈이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한화는 악재와 마주했다. 정근우의 부상, 부진에 따른 김태균의 1군 엔트리 말소가 그것이다. 수년간 부동의 리드오프(정근우)와 4번타자(김태균)로 엄청난 힘을 불어넣은 둘의 이탈은 가뭄계 불 수 없는 요소였다. 한 감독은 “처음에 내가 구상했던 계획과 어긋나서 변화를 줘야 했다. 워낙 변수가 많아 애초 생각했던 팀의 색깔이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젊은 피의 등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19세인 정은원은 그 중심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부터 (정은원은) 불박이로 생각했다. 내년, 2년 뒤에는 더 탄탄한 조합을 기대한다”는 한 감독의 말이 정은원의 탄탄한 입지를 설명한다.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상생의 트레이드…‘거래의 기술’ 필요한 KBO리그

팀 전력 강화·리그 평준화의 지름길 구단들, 실재에 대한 두려움 떨쳐야



이경호의 해피 존

지난 10년간 KBO리그에서 가장 아깝게 불발된 트레이드를 꼽는다면 2012년 KIA 타이거즈 최희섭(현 MBC스포츠+ 해설위원)과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불펜 투수와 이적 협상일 것이다. 2011년 12월 당시 KIA와 히어로즈 프런트 최고 책임자는 최희섭과 불펜 핵심전력 투수를 트레이드하는데 합의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경영윤리를 저버려 현재 복역 중이지만 선수를 보는 안목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히어로즈 경영진이 왜 최희섭의 트레이드를 위해 팀 핵심 불펜 투수를 내놔는지 취재를 했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①홈런이 많이 나오는 목동 홈구장에 최적화된 타선을 구축하기 위해 우타 홈런 타자 박병호, 강정호와 함께 왼손 거포가 필요하다. ②외부에서 영입 가능한 왼손

홈런타자 중 최희섭은 소속팀 코칭스태프와 불편한 관계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트레이드 할 수 있다. ③만 33세의 검증된 그리고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타자다. 쉽게 오지 않는 기회다.

KIA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 선동열 감독 취임 첫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팀 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베테랑 선수들과 마찰이 일고 있었다. 최희섭을 트레이드하고 불펜 투수를 영입하면 선수단 쇄신과 마운드 보강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발표 직전 KIA는 트레이드를 틀었다. 대외적으로는 ‘트레이드 대상 투수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만약 최희섭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홈런 30개, 40개를 치면 누가 책임지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장석 대표는 당시 ‘트레이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흔계’했다.

최근 KIA와 키움 팬 사이에서는 김세현과 이승호의 트레이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017년 김세현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마무리 투수였다. 이승호는 촉망받는 좌완 신인 투수였다. 이승호를 포기하고 김세현을 얻은 KIA는 그 해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품었다. 이승호는 올해 키움의 핵심 선발로 성장했다. 반대로 김세현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누가 트레이드의 승자라는 소모적인 논란이 다시 시작될 계기다.

최희섭의 트레이드가 불발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KBO리그 트레이드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승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에 있다. 성패와 관계없이 트레이드는 리그에 활력을 준다. 팀 전력 강화와 리그 평준화의 지름길이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보다 더 흥미롭고 드라마틱하다.

키움은 트레이드 잘 하기로 소문난 구단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사상 최초 삼각 트

레이드를 통해 포수 이지영을 영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함정은 존재한다. 만약 FA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뀐다면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이지영을 단 한 시즌 만에 놓쳐 버릴 수도 있다. 그만큼 트레이드는 변수가 많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와 무관했던 30대에 쓴 ‘거래의 기술’은 이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높았다. 부동산 사업가가 쓴 책이지만 ‘더 크게 생각하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언론을 이용하라’ 등의 내용은 그 어떤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자 철학이다.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서 서둘러 선택을 이끌어내는 무자비한 방법도 담겨져 있지만 ‘거래의 기술’의 메시지는 분명 KBO리그에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선수의 인생을 바꾸고, 팀의 운명을 바꾸고, 리그 판도를 바꾸는 용기 있는 트레이드를 기대해 본다.

rush@donga.com

박종훈·최원태, 나란히 7이닝 무실점 호투

(SK) (키움)

1일 게임 브리핑

●…SK 와이번스 박종훈과 키움 히어로즈 최원태가 나란히 호투하고도 승리와 인연 맺지 못했다. 박종훈은 1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경기서 7이닝 4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득점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올 시즌 7경기에 선발 등판해 2.7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지만,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키움 선발로 나선 최원태도 올 시즌 최다 7이닝

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역시 타선에서 점수를 뽑지 못해 승수를 올리지 못했다.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은 대전 두산 베어스전에 앞서 “정근우와 김태균 모두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근우는 4월 30일 주루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고, 1일 경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손상으로 재활이 3주 가량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태균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214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한 감독은 “(김)태균에게 ‘머리를 식히며 연구하라’고 했다. 팀이 바라는 모습과 거리가 있었

다. 처음에 구상했던 계획과 어긋나서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정근우, 김태균과 더불어 투수 김진욱을 엔트리에서 뺐고 내야수 이창열과 외야수 이원석, 포수 김종민을 대신 등록했다.

●…4월 단 1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했던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 5번 포수로 선발 출장해 1회 선제 3점 홈런을 터트렸다. 시즌 5호 홈런. 강민호는 3월 31일 두산 베어스전 이후 홈런을 치지 못했다. 팀 동료 김상수는 KBO리그 역대 90번째로 개인 통산 1000안타 타자가 됐다. 2번 2루수로 선발 출장한 뒤 1회 첫 타석에서 좌전 안타로 1000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2009년 데뷔 이후 11시즌 만에 달성한 기록.

●…두산 권혁이 이적 후 처음으로 1군에 등록됐다. 김태형 감독은 한화전을 앞두고 “권혁은 상황이 되면 바로 내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월 1일 한화에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식된 권혁은 이를 뒤인 2월 3일 두산과 계약했다. 2019시즌 선수등록 마감일(1월 31일)을 넘겨 등록한 탓에 5월 1일부터 1군 진입이 가능했고, 그 시기에 맞춰 곧바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권혁은 “처음은 이미 다 했다”며 “그동안 준비 잘했으니 내 기량을 보여주고 싶다. 전혀 아프지 않고 몸 상태도 좋다”고 밝혔다. 덧붙여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떨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